

미디어파사드 '가상타종' 정유년 맞는다

올해 전주시 제야축제 행사에서는 풍남문을 배경으로 한 미디어 파사드를 활용한 가상타종행사가 첫 선을 보인다.

지난 23일 전주시에 따르면 다사 다난했던 2016년 한 해를 시민들과 함께 마무리하고 희망의 2017년 정유년을 맞이하는 '2016 제야축제-희망을 쓰다' 행사가 오는 31일 오후 9시 45분부터 다음날 0시 10분까지 풍남문 일원에서 다채롭게 펼쳐진다.

심명나는 사물놀이 한마당으로 문을 여는 이날 행사에서는 오후 10시부터 30분동안 풍남문을 스크린 삼아 펼쳐지는 미디어파사드 공연이 진행되며, 30명의 학생 단원으로 구성된 한옥마을주니어빅밴드의 밴드공연과 젊음과 열정을

전주시, 제야축제 31일 오후 9시 45분부터 개최

발산하는 뜨거운 비보이 공연, 무형문화재인 왕기석 명창의 흥겨운 판소리 한바탕 등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형 프로그램으로 알차게 채워진다.

여기에 시민들의 꿈과 희망을 담은 시민영상 인터뷰와 주요 인사들의 덕담 한마디에 이어, 새해의 시작을 알리는 화려한 불꽃쇼가 풍남문 위를 가득 메울 예정이다.

특히 올해 전주시 제야행사에서는 풍남문 종각 보수로 인해 완산중 타종행사가 불가능함에 따라, 빛의 예술인 미디어파사드를 활용해 시민들과 함께하는 가상현실의 타종행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날 풍남문 광장에는 시민들의 새해 소망이 담긴 소원지를 새겨줄에 매달아 놓는 이벤트가 진행되며, 시는 시민들이 적은 소원지를 대보름행사 때 달집과 함께 하늘 높이 날려 보낼 계획이다. 또, 풍남문 상인회에서는 제야축제에 참여하는 시민들을 위해 따뜻한 차와 떡을 준비해 나눔으로써 더욱 따뜻하고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들로 새해를 준비할 예정이다.

최학기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은 "2016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31일 하루만큼은 많은 시민들께서 소중한 사람과 함께 제야행

사에 참여해 소원도 빌고, 내년의 안녕을 기원하는 뜻깊은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을 듯하다"면서 "남녀노소 모두가 함께 즐기고 참여할 수 있는 소박하고 따뜻한 행사로 진행되는 만큼 시민이 주인이 돼 함께할 수 있는 제야축제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제야축제의 원활한 진행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행사 당일인 31일 오후 9시부터 1월 1일 00시 30분까지 3시간 30분 동안 풍남문 일원에 대한 교통통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행사 참여시 대중교통 이용과 교통통제에 따른 시민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김영재 기자



아이들을 위해 써주세요

한국도로공사 퇴직자들의 모임인 ㈜도성회 전복지회는 지난 23일 소외계층을 위한 이웃돕기에 참여해 희망하는 운영위원회 위원들의 뜻을 모아 전주시에 '엄마의 밥상' 성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김영재 기자

전주한옥마을, 걷기 편한 도로로 탈바꿈

불법 주·정차 등으로 인해 도로 경관이 훼손되고 보행 불편을 야기했던 전주한옥마을 내 골목길이 걷기 편리한 도로로 탈바꿈됐다.

전주시 한옥마을사업소는 올해 1600만원을 투입해 한옥마을의 출입구 역할을 하는 한옥마을 공용주차장에서 시작하는 한지길과 한지길과 맞닿아 있는 어진길, 전주향교 앞 전주천동로에 대한 도로경관개선사업을 추진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시는 많은 관광객이 통행하는 한지길과 어진길, 전주천동로에 목재 느낌의 대형화분 98개를 약 450m 구간에

설치하고 남천을 식재, 지역주민들과 관광객들이 편하게 거닐 수 있는 보행 도로로 만들었다.

특히 불법주정차로 인해 한옥의 지붕, 담장 등이 가려져 경관이 훼손되고, 지역주민들과 관광객의 보행에 불편을 줬던 한지길과 어진길에는 화분을 설치, 남천이 식재돼 한옥마을만이 가지는 고유한 도로 경관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시는 한옥마을 주변 도로가 새 단장되면서 시민들과 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의 보행환경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재 기자

ICT융합산업 육성, 전주발전 '디딤돌'

농·생명과 사물인터넷 등 통해 성장동력 발전기반 다져

전주시가 지역의 잠정인 농생명산업과 미래먹거리로 각광받는 사물인터넷(IoT) 등의 ICT(정보통신기술산업)을 연계한 ICT융합산업 육성을 전 주발전의 디딤돌을 놓았다.

ICT융합산업 육성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면 지역 성장동력 분야 기업들이 함께 발전하고, 기업의 발전이 시민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효과가 기대된다.

시는 올 한해 따뜻한 경제 실현을 위한 '시정 100대 핵심과제'의 일환으로 추진한 '지역 ICT산업기반 구축사업'이 미래먹거리 창출을 위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뒀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대표적으로, 시는 농·생명 및 사물인터넷(IoT), IT·SW기술의 융합산업 육성을 통해 미래 전주 경제를 이끌어나갈 산업들을 도출해왔으며, 특히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지난해부터 수행해 온 '개방형 농생명SW융합클러스터 사업'을 통해 올해 ICBM기반의 보급형 농업환경 센서 및 통합 제어시스템(메디앙시스템) 등 10개의

연구개발 과제를 지원하고 오는 2019년까지 총 70여개의 과제를 발굴하게 된다.

시는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농생명 SW융합클러스터 사업 참여기업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지속적인 사업 모니터링 및 컨설팅 등 지원이 가능한 업무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사물인터넷(IoT) 활용기반 구축을 위한 K-ICT 디바이스랩을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내에 구축, 사물인터넷 분야 개발환경을 제공하고 해당 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업자 및 취업 준비생의 우수 아이디어 8건에 대해서는 제품개발을 지원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시는 초·중·고·대학생을 대상으로 전국 최초로 3D프린팅과 사물인터넷이 융합된 '카넥티드 카제작교육 및 경진대회'를 실시하는 등 미래산업 분야의 인재육성도 본격화했다.

시는 또 지난 5일에는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6차 산업과 ICT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6차 산업의 생산과 유통

과정을 혁신하고, 6차 산업 생산물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소재의 산업화를 위한 'Agro-ICT 융합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선포식을 개최하기도 했다.

시는 전주시민들을 위한 새로운 먹거리산업을 창출하기 위해 2017년에는 농생명 ICT융합산업 고도화 및 집적화를 위한 'Agro-ICT 융합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대한 타당성 진단 및 과제발굴 용역을 추진할 예정이다.

안병수 전주시 신성장산업본부장은 "ICT융합산업은 기존 ICT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의 결과로, 올해는 전주시가 지역 ICT산업이 4차산업 혁명 기반을 만드는데 많은 노력을 쏟아 부었던 한 해였다"라며 "앞으로 신성장산업 발전용역 등을 통해 농생명 3D프린팅,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가상증강 현실 등 ICT융합 산업분야를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모델들을 도출해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간다면, 앞으로 지역의 많은 기업들이 함께 성장하고, 일자리를 만들어나가는 산업구조를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서학파출소 준공식 가져

완산경찰서는 지난 23일 경찰협력단체장과 동서학동 기관단체장 및 주민 6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학파출소 준공식을 가졌다.

서학파출소 신축공사는 지난 8월부터 시작되어 약 4개월간의 공사를 진행해왔다.

이날 준공식에는 최종국 화성중앙건설대표 등 2명에게 경찰서장 감사장을 수여하기도 했다.

강황수 완산서장은 "청사 신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주민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며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지역주민들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김민근 기자

경찰 때린 전주시청 직원 입건

전주완산경찰서는 지난 23일 경찰관을 때리고 폭언을 퍼부은 전주시청 소속 공무원 황모(37,남)씨를 형사입건 했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22일 새벽 1시경 만취 상태로 택시에 탑승해 목적지에 도착해서도 요금지불을 거절하고 택시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깨우려하자 황씨는 유모(38) 경찰장에게 폭언을 퍼붓고 가슴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민근 기자



전주덕진경찰서, 하반기 정년 퇴임식 가져

덕진경찰서는 지난 23일 경찰서 2층 회의실에서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하반기 정년 퇴임식을 가졌다.

이날 퇴임식은 지난 30여년을 경찰에 몸담으며 치안에 헌신한 선배들을 축하하는 재직패기념 수여 및 꽃다발 전달식 등 영예로운 퇴임식을 축하하는 시간을 보냈다.

이번 정년퇴임자는 진북파출소장 오동석 경감, 술내파출소장 송봉기 경감, 역전파출소 팀장 이상로 경위, 아중지구대 팀장 이득우 경위, 역전파출

소 팀장 임금철 경위, 동산파출소 팀장 박창수 경위, 팔복파출소 팀장 유경수 경위 등 총 7명으로 개인사정으로 참석못한 2명(최정운,최정운)에 제외한 5명이 참석하였다.

박성구 덕진경찰서장은 "대한민국 경찰관으로 살아온 선배님들 모두 너무나 자랑스러울 뿐만 아니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비록 몸은 공직을 떠났지만 경찰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조언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김민근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2016 나눔캠페인 기부자

(고창군 심원면)

- ▲진주마을 주민 일동 137,000
- ▲담양마을 주민 일동 201,000
- ▲금산마을 주민 일동 217,000
- ▲동전마을 주민 일동 371,000

총계 926,000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